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全)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학원복음화, 청소년복음화를 위한 학원선교회 총회

- 오늘 3시 3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학원관계자와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전도위원회 산하 학원선교회는 오늘(26일) 오후 3시 30분에 4층에 있는 고등부 교사실에서 총회를 가진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퇴폐적인 저질문화의 범람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학원선교회는 각급학교 전·현직 교사와 교수, 학원관계자 및 청소년 복음화와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에는 역동적인 선교를 위해 방송·통신 선교, 문서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농어촌 선교 등 여러개의 실행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학원복음화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작년 3월에 창립

한 학원선교회에서는 청소년 선교, 학교생활의 상담과 지도, 미래 지도자를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생 동아리의 활동 지원과 봉사,

크리스찬 교육자 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 예배 시 2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환영회를 가진다. 2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도록 한다.

환영회는 새가족들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를 받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누며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 2월의 새가족 (1월 29일 ~ 2월 19일) *

- 정영진 박경민 변지영 최희진 박희배 김인희 조형규 정소자 조용재 조홍재 조혜은
 이미영 임봉재 박영관 유옥주 오세원 안혜원 손종국 신지호 이옥희 박수경 박진근
 이범석 임경자 이승래 김정희 이범우 허윤숙 이창현 하태우 김동조

겨울성경학교 현장

지난 주간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학교별로 열렸다. 매주일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했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깊어지기도 했다.



☉ 순례자 컬럼 ☉

사람을 사람되게!

언제부터인가 인간 소외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질병으로 부각되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산업사회의 병폐와 그 찌꺼기를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서구 사람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려준 비(非)인간화나 소외라는 말을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의 말장난 정도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는 순간 이미 비인간화의 과정 때문에 현대인들은 소외감에 울고 있다.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되려는 인본주의나 행복의 전령사와 같은 과학발전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는 못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무관심의 세계로 버려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할 것이다.





3.1 운동과 기독교

이만열 전도사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장)

올해는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제 76 회째 삼일운동 기념일을 맞는 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한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삼일운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선조들 특히 이 운동에 앞장 섰던 기독교인들의 애국·민족의식과 기독교신앙을 살펴보는 것이 뜻깊은 일일 것이다. 해방 50년 동안 유례없이 성장·발전한 한국의 기독교회는 자신의 사회와 민족문제에 대해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 삼일운동의 원인

삼일운동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지 9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이다. 일제가 작성한 축소된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1,542회의 시위운동에 202만명이 참여하였고 전국 218개군 중에서 212군에서 운동이 일어났으며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5천여 명의 상해자를 냈고 5만여 명이 불합격 경찰서 혹은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삼일운동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론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1917년 10월에 일어난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외적인 요인이다. 삼일운동의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강점 이후 노골화된 혹독한 일제의 식민통치에 있었다. 뒷날 민족말살정책으로까지 이어진 일제의 식민통치는 토지조사사업(1912-18)을 통해 한민족 생존의 기반인 토지를 빼앗는 등 강점 9년만에 이미 그 포악성을 들어내었는데, 이러한 내적인 요인을 주로 하고 1차세계대전 후에 변화되기 시작한 세계질서의 재편성 분위기를 주변적 요인으로 하여,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2. 삼일운동의 의의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사 뿐만 아니고 세계사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삼일운동 후에 상해임시정부운동과 만주의 무장항일투쟁이 가능해졌고 국내에서도 각종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동안 민족운동의 중심이 지배자 중심이었는데, 삼일운동은 일반백성 중심의 민족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전에는 국가의 주권이 국왕과 양반에게 속했는데, 삼일운동을 계기로 나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민주공화'

정'의 국가체제가 확립되었다. 삼일운동의 결과로 성립된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일운동은 포악한 통치자 일제로 하여금 그들의 통치방식을 바꾸도록 하였다. 즉 그들이 총칼로 다스리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표현한 '무단통치'를, 더 악랄하게 위장하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라도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하였다.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사 뿐만 아니고 세계사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민족운동의 중심점을 일반백성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삼일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말의 민족의식은 대부흥운동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 더욱 조직화되어, 삼일운동 때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할 만한 단계로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삼일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고난 뒤에 영광스런 부활이 있어 '새생명'을 약속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운동에 열기와 용기만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의 일정까지 짜고 서로 독려하면서 참여했던 것이다.

목숨을 걸고 삼일운동에 앞장섰던 선조들의 기원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적인 회복이요, 통일 조국의 재건이다. 그 선조들의 민족사랑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후손들이기도 한 우리들은 그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자주민족, 통일국가 의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삼일운동은 또 1차대전 이후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던 강대국 이익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약소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1차대전 후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약소민족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더욱 종속시키려는 '베르사이유 체제'를 성립시켰는데, 삼일운동은 바로 강대국들의 이러한 체제를 거부한 최초의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삼일운동의 영향을 받아중국, 필리핀, 인도, 이집트, 베트남 등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 때문이다.

3. 삼일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역할

삼일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을 불붙이는 데에 앞장 선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인, 48인 중에서 24인을 차지하였다. 이 운동은 첫날 전국의 9개지역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서울을 제외한 8개지역은 모두 기독교인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만 보아도 삼일운동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한 비중이 어마어마했는가를 알 수 있다. 삼일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더욱 돋보였다. 삼일운동의 주동세력이 뚜렷한 지역의 25%-38%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났고, 체포·투옥자의 17%-22%가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1600만)의 1.3%(20여만명)에 불과하였다 거기에 비해 천도교인은, 손병희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명부등재자가 300만이요 의무부담자가 200만이라고 하여 기독교인보다

10배가 넘었지만, 그 운동역량은 비교가 되지 못했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운동 참여는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핍박을 가져왔다 예배당에 모이게 한 후 불을 쬐지르고 총격을 가해 29명을 한꺼번에 몰살한 '제암리사건'은 일제의 극악한 만행이자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삼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말 기독교가 수용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받았기 때문이다. 한말의 민족의식은 대부흥운동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 더욱 조직화되어, 삼일운동 때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할 만한 단계로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강력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삼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민족은 하나님에 내신 선물이요, 그러기 때문에 보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삼일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고난 뒤에 영광스런 부활이 있어 '새생명'을 약속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운동에 열기와 용기만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의 일정까지 짜고 서로 독려하면서 참여했던 것이다. 민족독립은 인간의 역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4. 과제

해방 5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목숨을 내놓고 삼일운동에 앞장 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기원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적인 회복이요, 통일 조국의 재건이다. 그 선조들의 민족사랑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후손들이기도 한 우리들은 그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자주민족·통일국가의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세대로 민족사에 기억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순례자 캠페인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5 제언 /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①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 ②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 ③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 ④ 진단 / 개인 기도생활, 기도 모임
- ⑤ 제언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기도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정된 지면에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기에 기도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보는 것에 불과했으라고 여겨진다. 이제부터 좀더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먼저, 기도생활에 지침이 되어 줄 책들을 여기에 소개한다.

-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 생명의 말씀사
- 「기도」 오 할레스비 / 생명의 말씀사
- 「기도」 리차드 포스터 / 두란노
- 「기도」 짐 그레함 / 두란노
- 「기도」 존 화이트 / IVP
-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 론 쉰니 / 네비게이토 출판사
- 「조지 물러의 일기」 / 두란노
- 「기도선집」 E. M. 바운즈 / 생명의 말씀사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송인규 / IVP
- 「명상기도」 리차드 포스터 / IVP
- 「기도하십시오」 벤 듀런 / 두란노
- 「기도의 오솔길」 데이빗 헤인즈 / 두란노
- 「직통 기도 직통 응답」 프란시스 가드너 헨터 / 나침반사
- 「올바른 기도」 리노이 아임스 / 네비게이토 출판사
-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해결」 더글라스 켈리 / 두란노
- 「기도탐구」 잭 하일스 / 두란노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김명남 / 두란노
- 「기도의 능력」 / G. 그랜저 플레밍 / 두란노
- 「기도는 호흡입니다」 벤 듀런 / 두란노
- 「그림기도는 이렇게」 존 패터슨 / IVP
- 「성경적 기도」 김정복 / 생명의 말씀사
- 「능력있는 기도」 존 알라리스 / 생명의 말씀사
- 「기도에의 모험」 캐더린 마샬 / 생명의 말씀사
- 「기도 - 하나님과의 대화」 로자린드 링커 / 생명의 말씀사
-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앤드류 머리 / 생명의 말씀사
- 「스필전의 기도」 딘스테일 / 생명의 말씀사
- 「기도의 문」 A. B. 심프슨 / 생명의 말씀사

책을 통해 기도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때로 텔레비전,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전화벨 소리, 긴급한 일의 횡포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해요소는 주님과 분리되려고 내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곤 하는 자기 자신이다. 회개하지 못한 죄, 자기 중심적인 생각(약4:2-3), 용서하지 못한 마음(마5:23-24, 엠4:32)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과 같다.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며, 사탄의 권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그 분과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도는 일이다. 기도으로써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며, 하나님께 향한 대부분의 봉사가 그렇듯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도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끌며 헌신은 더 많은 기도, 더 훌륭한 기도로 우리를 이끈다.

▶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목마른 자들아

이강인 (사랑부 교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라면 누구나 큰 보람을 느낄테지만 사랑부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런 것 같다. 감기가 지독히 들어서 가지 말라는 엄마에게 때를 쓰고 울며 기어코 교회에 오는 아이를 보거나, 선생님이 데리러 가야만 할 수 있던 아이가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며 낯날이 시큰해지기도 한다.

「새롭게 변화된 나」라는 주제의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 21일에 있었다. 짹짹한 날씨라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미처 봄 방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을 하여 밤 늦게까지 풍선을 불어 교실을 단장하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영양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강사인 입진태 목사님은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 십자가의 효험을 전해주셨는데 좀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아이들에게 먼저 '죄'라는 카드를 목에 걸게 하였다가 설교가 끝난 후 그 카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는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서 미처 시작도 못한 것이 있고 인형극과 게임, 울

동은 너무 짧아 아쉽기만 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며칠동안 함께 하고 싶었지만 사랑부의 특수성은 이 일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가 맡은 아이는 말을 할 줄 모르뿐 아니라 혼자서 설 수도 없는 정신 지체아인데 중등부로 보내달라고 때를 쓴다. 하나님 지식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의 표출이다. 과연 내 말을 알아듣고나 있는지 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셨던 것이다.

이제, 사랑부의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천국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지간한 수준의 성경퀴즈대회도 할 수 있다. 성

극도 한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처럼 이들의 육신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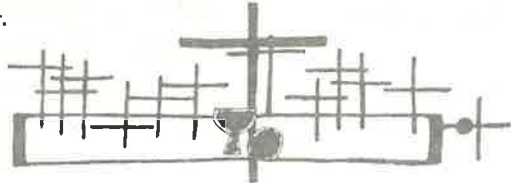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이들이 교회에 와서 안도의 눈빛을 띠고, 예수님과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확신으로 기쁜 얼굴이 된다. 때때로 아이들의 보행을 돕다가 담이 들어 고생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덩그머니 떠오르는 그들의 얼굴에 마음이 밝아져서 둘러 교회로 향한다.



앞서가는 전도전략으로 평가된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 미국 장로교 '95 Mission Year Book에 실려-

미국 장로교(PC USA)가 매년 발행하는 기도와 연구를 위한 '95선교 보고서에 김치신학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두 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선교 보고서에서 우리 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국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al)에서 행하는 김치 신학 세미나가 제 4차에는 아프리카 20여개국의 지도급 목회자 30명을 초청. 왕복 여비와 체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감당하며 자국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하도록 영적인 재충전과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앞서가는 선교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100교회운동」자매결연 현황

106개 교회 후원자 확정

1995년 2월 25일 현재

■ 남인교회/20교회 ■ 여전도회/29교회 ■ 개인·가정/55교회 ■ 다락방/8교회 ■ 교회학교/3교회 ■ 찬양대/1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106	영주노회	이산제일교회	석성환(전도사)	정동호

■ 문의 및 후원신청 「100교회운동 본부」 ☎ 517 - 7651

『100교회운동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농어촌교회와의 결연은 1년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와 결연하신 분은 1년동안 그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혹 1회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00교회운동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붉은색 봉투에 '1회' 혹은 '일시불'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결연하신 분들은 1월 후원금까지 소급하여 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

오는 3월 27일에 개강하는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칭, 제본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하나, 에스더 회원
짐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 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 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 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하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 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지하	남자, 여자성도 각 세 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자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 - 민족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자신의 은사를 살려 작게라도 참여해 보자.

문의는 총책임을 맡으신 최종시 장로님이나 임진태 목사님께!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 - 3 ☎ 517 - 7651 - 5

■ 목회자 동정, 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지난 21일과 22일에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가 주최한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강해설교와 신학」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다.
- 나희주 장로는 지난 16일에 숭실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
- 허희철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대원 가운 100벌을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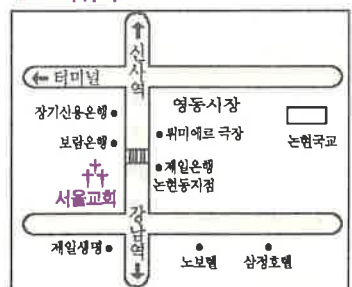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2.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온전한 천국시민의 삶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4.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5. 더욱 힘써 정직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